

“하나의 길을 따라 가듯, 영화를 보는 듯한 공간 구성”

9월 개막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주요 참여 작가 17명 발표 ‘판소리’ 모티브 동시대 공간 탐구... 전시 오프닝 오페라 공연

“에코시스템적인 접근법, 일테면 우리가 전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길을 따라가듯, 영화를 보는 듯한 움직임을 연출할 수 있는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대표 이사 박양우)가 오는 9월 개막하는 비엔날레 참여 작가 발표회를 열었다.

25일 밤 동구 라마다충장호텔에서 열린 참여작가 발표회에서 니콜라 부리오 예술 감독은 제15회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주요 작가들을 공개했다.

니콜라 부리오 감독은 ‘판소리-모두의 울림’이라는 주제에 따른 전시 컨셉을 비롯해 공간 구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부리오 감독은 ‘판소리 서사에 담긴 관계적 풍경과 존재의 공명이라는 기본 전제에 따라 ‘미시적 존재’에서 ‘행성’까지 광대한 공간 탐색에 초점을 맞췄다”며 “오늘의 인류 상황을 공간과 사운드의 관계형으로 풀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시 오프닝은 소리와 스토리의 결합인 판소리를 모티브로 오페라 공연을 펼칠 예정”이라며 “광주 출신 한강 작가가 창작한 시에 곡을 붙여 소리와 공간을 폭넓게 조명하는 작품을 풀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리오 감독은 일부 작가들이 다루는 공간의 문제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먼저 동시대 지형과 도시 상태, 산업화가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재현한다. 작가들이 우리가 사는 공간을 어떻게 개방하는지도 중요 관심사다. 기계, 동물, 박테리아 등을 포함해 다른 생명체들과 대화를 이어가거나 세상을 이루는 미시적 분자들을 관찰함으로써 그 같은 문제들을 풀어낼 예정이다. 특히 비엔날레 전시관 3개 섹션과 양림동 일대로 확장된 전시를 펼쳐 ‘모든 존재의 울림’이라는 주제를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발표한 17명 참여 작가의 면면은 다음과 같다.

인도 작가 아몰 K. 판턴은 인도 사회의 사회 문제인 계급 문제를 다룬다. 특히 불가촉천민을 모티브로 공간이 어떻게 정치 분쟁과 연관이 되는지 사회해방운동 등의 관점에서 정치 공간 투쟁을 탐색한다.

최하늘 작가는 공간의 변화, 산업화로 인한 공간의 변모 등을 다룬다. 작품 ‘신체적: 우리의 팔꿈치로 쌓은 허연 탑’ 등을 통해 개인화되어 가는 고립된 사회에 대한 작가의 사유를 풀어낼 계획이다.

중국 작가 쟡 신하오는 영상작업 ‘층위와 표식’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걸어가는 과정을 영상에 담음으로써 사람들이 장소



맥스 후퍼 슈나이더 작 ‘트랜스퍼 스테이션’

어떻게 인지하는지 궁구한다. 사람들이 공간을 떠올릴 때 특정 체험과 결부시키는데 이는 특정 시기의 담론, 뒤러린 기술, 자연이 연결된다고 본다.

미국 컨트리 루이빌 출신인 노엘 W. 앤더슨은 다양한 사진 아카이브에서 추출한 이미지를 활용한다. 그는 이미지 작조를 매개로 권위와 권력 구조, 내면과의 상호작용을 드러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크로아티아 출신인 도라 부도어는 도시 공공 공간을 중심으로 조사와 다양한 예술적 개입을 전개해왔다. 영상 작업의 배경이 되는 리를 아일랜드는 도심과 주변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다.

김영은 작가는 소리와 청취를 사회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사물이자 행동으로 본다. 최근 작업이 특정 지정학적 맥락에서 소리와 청취의 미가 어떻게 발견되고 전개되는지, 어떤 탈식민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고찰한다.

살아 있는 생명체, 폐기된 기술, 쓰레기 등에 대한 분류학을 개발해온 맥스 후퍼 슈나이더의 작품도 흥미롭다. 수집가라도 묘사되는 작가는 자연 세계에 대한 비극적 인간의 개입

을 탐색한다.

숙련된 판화가로 회화, 사진 작업까지 폭넓은 작업을 해온 존 도웰은 이번엔 70-80년대 제작한 종이에 그린 회화와 드로잉 시리즈를 선보인다. 대형 작업인 ‘백색회화’는 음악, 춤, 무엇보다 존 케이지와 존 콜트레인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이예인, 박미미, 소피아 스키단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

박양우 대표 이사는 “세계적인 감독이자 큐레이터인 부리오 감독 등을 통해 광주 비엔날레가 한류와 연관돼 널리 알려지고 있다”며 “향후 광주비엔날레 30년 역사가 담긴 아카이브를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비엔날레는 다양한 생명체들과 감응할 뿐 아니라 ‘판소리’를 모티브로 동시대 공간을 탐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비엔날레 포맷으로 이것이 어떻게 도시 안으로 들어와 다른 예술, 문화, 산업 등의 영역과 결부돼 효과를 발휘하는 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글: 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

판소리 PANSORI



‘행복한 동행’

동화같은 풍광 ‘행복한 동행’

박정희 개인전, 4월1일까지 인사아트센터

박정희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꽃을 좋아했다. 자연 속에서 뛰놀던 추억은 어른이 된 후에도 늘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길가에 늘어난 꽃나무를 비롯해 연못가에 핀 수련, 그 사이를 유유히 떠도는 오리 등은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아련하다.

박정희 서양화가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전시를 연다.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3층 G&J (광주 전남) 갤러리.

이번 초대전에서 박 작가는 ‘마음의 거울’ 같은 캔버스에 심상의 풍경을 화사하면서도 차분한 색조로 풀어낸다. 어린 시절 보았던 자연의 풍경과 형태색의 이미지는 맑고 아름답다. 작가의 내면에는 그렇게 오래 전 풍광들이 동화처럼 남아 있다.

류재근 문화평론가는 “그의 작품에서 남다른 미적 감정을 느끼는 것은 독특한 물감의 조합에 의한 회화적인 색채 이미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동서양이 어우러진 조화미와 다양한 표현 기법을 통해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꾸미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고 일상적인 감상을 우리 삶의 언저리에서 건져 올린 일상의 기록들이다”고 평한다.

작품 속 나무와 꽃과 집, 풀, 산 등 어우러진 자연은 모두 하나의 가족처럼 다가온다. ‘행복한 동행’은 하나로 어우러진 자연을 상징한다. 모든 생명을 품은 산은 가족의 안위를 책임지는 아버지의 품처럼 견고하면서도 자애롭고 해질녘 하늘을 물들인 분홍빛의 잔영은 따스한 감성을 선사한다.

박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나의 그림은 꿈속에서의 추억의 정원을 가꾸고 희망의 날개를 맘껏 펼쳐 보는 그리움의 스토리이기도 하다”며 “모든 이에게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동행이 되어 진실한 꽃을 피우는 잔칫날이 올 때까지 나는 캔버스에서 행복한 벗들과 마음을 나누는 영원한 벗이 될 것이다”고 말한다.

국립강원대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 작가는 갤러리 라메르 등 다수 전시와 아트페어 및 그룹전 300여회에 참여했다. 파리 아카데미 예술상, 예술문화인 대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클래식으로 힐링의 시간...피아노 앙상블 ‘크레센도’ 정기연주회

4월 6일 금호아트홀

점점 강한 셈여미를 지시하는 셈여림표 ‘크레센도(♩)’는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장르에서도 비유적인 표현으로 자주 활용된다. 시작은 미진하더라도 점차 발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예술공연 팀명으로도 쓰인다.

2019년 창단한 피아노 앙상블 ‘크레센도’가 제4회 정기연주회를 펼칠 예정이어서 이목을 끈다. 4월 6일 오후 7시 금호아트홀.

생상스 ‘죽음의 무도, Op.40’으로 막을 연다. 바이올린에 전남대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악대학 아카데미, 이탈리아 로마 시립 아카데미 디플롬 등을 받은 김유미와 전남대 음악학과를 졸업, 어울림 피아노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 중인 박선경이 출연한다. 이어 멘델스존의 ‘무언가

(無言歌), Op.53 No.3’는 전남대 음악교육과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오희현이 들려 줄 예정이다.

슈만의 ‘리스트 헌정곡’은 최유진이, 요한 밥티스트 반할의 ‘클라리넷과 바이올린,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E단조, Op.20 5번’은 박수빈(바이올린), 장인아(피아노), 안정아(클라리넷)가 연주한다.

이 밖에도 강효미는 ‘Grunfeld, Soiree de Vienne, Op.56’을, 이경옥은 멘델스존 ‘무언가 Op.85’로 관객들을 만난다. 전남대 음악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암스테르담 콘서바토리를 수료한 박준희는 ‘파우스트 왈츠’를 들려주며 라흐마니노프 ‘2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2번, Op.17’은 최유진과 오희현 피아니스트가 연주한다.

크레센도 최유진 총무는 “청소년을 위한 힐링 음악회로 기획한 이번 공연은 시민 및 청소년에



지나해 정기연주회에서 ‘크레센도’ 최유진, 오희현 피아니스트 등이 연탄곡을 들려주는 장면. (크레센도 제공)

게 ‘클래식’으로 한층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곡들로 레퍼토리를 구성했다”며 “‘크레센도’라는 팀명처럼 점점 발전된 실력으로 ‘힐링’의 음악

을 더 멀리 퍼뜨리고 싶다”고 말했다. 전석 1만원.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관객이 배우...심리치유 즉흥극 ‘공감’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윤우상 연출...4월7일 광주예술의전당

관객 중 지원자가 무대에 올라 자신의 고민을 풀어낸다. 즉석에서 주인공으로 선발된 ‘일일 배우’는 대본도 레퍼토리로 없지만, 조연 연기자와 함께 몰입의 즐거움을 보여준다.

모레노가 창시한 심리극 형태를 빌려, 즉흥으로 관객이 배우가 되는 공연이 펼쳐진다. 한국심리드라마연구원과 대안공간 공공연이 치유심리연극 ‘공감’이 바로 그것. 오는 4월 7일 오후 2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2014년부터 시작돼 이번엔 11회차를 맞은 공연은 심리연극 형식을 통해 출연자와 관객들에게 심리 치유의 시간을 마련한다. 관객 중

자원을 받아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고, 관객들이 투표를 통해 ‘오늘의 배우’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배우를 선발한다.

지난 공연에서는 주석 투자로 수억 원 손실을 입고 극단적 생각까지 경험했던 시민 A씨가 무대에 올랐다. 반복되는 가족 갈등으로 전문 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았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했었다고 한다. 공연을 통해 마음에 쌓인 응어리를 풀어냈다는 후문.

11회를 맞은 이번 공연은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윤우상(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이 연출한다. 현재 밝은마음병원장이자 사이코드라마 수련감독으로, 한국사이코드라마 소시오드라마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저서 ‘강강술래



심리치유 즉흥극 ‘공감’.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학교’ 등을 펴낸 바 있다. 윤우상 연출가는 “고민을 즉흥극 형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연대’와 ‘공감’으로 마음 속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쉽게 사라지지 않는 트라우마 등을 해소하는 집단심리

치료, 연극심리치료 방식의 공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일반석 2만 원, (대)학생 1만원. 한국심리드라마연구원 예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생활문화예술활동 사업 지원

광주문화재단, 단체·동아리 29일까지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2024년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 및 동아리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문학·시각·공연 등 다양한 분야 프로젝트 사업비를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29일(오후 6시)까지이며 희망자는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단체’와 ‘동아리’ 2개로 구분하며, 지원규모는 총 160건. ‘단체’는 10건, 단체별 300만원 지원하며 ‘동아리’는 150건 동아리별 13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시정 사업과 연계해 광주FC를 비롯해 광주비엔날레, 가야첼피어스 등 주요행사 장소에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기회가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창작지원원 문의.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